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9호 [루게 제23326호] 주체100(2011)년 1월 9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해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 료녕성위원회 서기가 선물을 올리
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훌륭히 개건확장된 평양밀가루공공장 및 신홍식료공장, 함만루대중식당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조선의 김정일최고령도자께서 최근 평양에 있는 2개의 공장과 식당을 현지 지도하시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먼저 평양밀가루공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추진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신홍식료공장과 함만루대중식당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인민들에게 맛 좋고 다양한 음식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동행하시였다.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트통신, 인터넷통신 뉴스 루, 케스프주제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세프조선천천협회의 인터넷공동홈페이지 《조선-백두산》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최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 김책제철련합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을 지지하여 여러 나라에서 보도, 성명 발표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올해에 다시 한번 경영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 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1일부터 4일 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수리아의 사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주요인물들이 공동사설을 발표하여 지난해에 안팎의 변질주의 세력의 악랄한 책동속에서도 조선인민들의 통일운동이 힘있게 전진해왔다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대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야 할 희망의 년대, 통일과 번영의 년대라고 하면서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독립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간다고 지적하였다.
그러기 위해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대화와 협력을 우선으로 적극 추진시켜나간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5일과 6일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들이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북남당국사이의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여 오해와 불신을 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것을 촉구하였다.
성명은 대결의 방법으로는 결코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갈 수 없다고 하면서 대화와 협상만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은 반드시 열릴것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대한 반향

신뢰와 화해의 분위기를 마련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접한 교육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교육자들, 학생청년들의 가슴 가슴은 지금 세계에 뒹뒹거리고 있다.
북남관계가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져 포탄이 오가는 험악한 지경에까지 이른 오늘 우리 민족이 전쟁의 류혈적인 참변을 막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자면 마땅히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대외협상을 통해 통일
대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접한 우리 화합공익사업의 모든 일군들과 정부원들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떨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런데 발표된 연합성명에서는 북과 남이 마주앉으면 오해와 불신을 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수 있다는데 대해 밝히었다.
그러다, 우리 민족이 세기와 년대를 넘으며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은 가슴아픈 일인데 세계정세에서 서로 싸우는것은 더욱 참을수 없는 비극이고 수치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마음과 힘을 합쳐 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번영하는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될것이다.
희망찬 새해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전군에 펼쳐나선 우리 화합공익사업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이번의 연합성명을 통하여 또다시 커다란 힘과 용기를 받아안고있다.
우리는 통일된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올해에 생산을 더욱 다그쳐나갈것이다. 특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공정들을 더욱 보장관리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실현에 적극 이바지하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었고 민족의 사회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지난 5일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연합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의 연합성명발표는 엄중한 현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획기적이고 대담한 조치이다.
분열의 비극속에 21세기의

애국의 부름에 화답하여

독립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협의해결해나갈것을 호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인민생활 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가슴을 세계에 뒹뒹거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는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함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로부러 한강토에서 한파를 이겨온 우리 민족이 서로 불신하고 대결할 아무런 리유가 없다.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

새로운 10년대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북과 남의 당국이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자기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북과 남사이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시급히 개회하는것은 오늘 머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지금 북남관계는 사상 류례없는 파국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고 조선반도에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수 있는 최악의 정세가 조성되였다.
민족분열의 비극이 세계를 하루 지옥되고있는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통일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북과 남이 대결과 충돌을 거듭하고있는것이야말로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이다. (공동사설에서)

불멸의 평양 밀가루 공장에서

평양 밀가루 공장에서

평양밀가루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있다.

지난해 1월 공장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방향과 방법을 완히 밝혀주시고 제기되는 문제를 다 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해가 저무는 12월의 찬바람부는 날에 또 다시 공장을 찾아주시었다. 최첨단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꾸러진 여러 생산공정에서 빵꾸로, 피자꾸로가 쏟아지는 호숫한 광경을 보고 또 보시며 우리 인민들에게 질 좋은 밀가루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니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는 인민들의 심정은 얼마나 크나큰 격경으로 높여왔는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단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자기들이 맡고있다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공장은 단 몇개월동안에 안팎으로 손색없는 현대적인 식료품가공기지로 전변되었다. 수상나무며 은행나무를 비롯한 갖가지 나무들이 구내의 풍치를 돋우는 모습도 보지 못했던 산뜻한 타일을 입힌 아담한 생산건물들과 조합을 데려온 이 꾸러진 생산현상들은 돌아볼수록 놀라게 한다. 공장을 뒀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리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대의건설지도국의 일군들과 건설자수들의 공장에 달려와 창조적 노력으로 공장을 새로 꾸려나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었다.

지도국의 건설자들은 건축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불라는 애국적열의와 대중적열의를 높이 발휘하여 방대한 건설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현대화의 돌파구를 자랑스럽게 열어놓았다.

전반적생산공정의 현대화도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었다. 종합조성실에서 빵, 피자 등

각종 식료품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공장들마디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바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노력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으로 달려나온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한디수평양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평양철도대학,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 인민대학습당, 중앙과학기술총보사, 미생물학연구소, 경영업과학분원 실험연구소의 과학자들의 힘은 하나로 고동쳤다.

우리의 기술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최첨단수준에서 완성하였다.

이런 열정을 안고 생산공정의 기술개선을 위한 전투에 진입한 각 단위의 과학자들은 기술준비를 철저히 하고는 탐구로 내로 밤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 전반적생산공정의 통합조

제공정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빠른 기일안에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질본석을 과학화할수 있는 어려운 기술과제도 훌륭히 수행하였다.

지난해 12월 공장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을 훌륭히 개건하여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제품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데 대하여 만족하시며 공정의 기술개간에 이바지한 관련기업소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파배기생산공정을 새로 일떠세운 데였다. 파배기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하는것은 어려운 과업이었다. 그러나 공정의 기술자들은 해당 단위의 과학자들과 함께 주저없이 기술준비

에 달려나왔다. 반죽, 성형, 튀김공정을 흐름식으로 전개하자면 흠이 있을 기술적문제가 많았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하루빨리 진척하기 위하여 이들은 밤잠도 잊고 원료의 배합비율을 찾아나갔고 자그마한 튀기기로 자체로 만들어놓고 여러차례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파배기 우리 신의 독특한 기술로 파배기생산에 대한 흐름식공정을 완성하였고 설비도 해당 단위의 과학자들과 힘을 합쳐 우리의 기술로 제작하였다.

지금 공정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업적을 증진성공과 빛내기 위하여 새해의 첫 전투를 분배있게 벌이고있다. 파배기직장, 빵직장, 피자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술관리를 더욱 짜고들면서 제품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식료품가공기지로 전변된 공장에서 지금 활황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회령식료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가 탄 휘저차는 회령식내를 경쾌하게 달리며... (문맥은 앞쪽 글과 동일함)

회령식내를 경쾌하게 달리며... (문맥은 앞쪽 글과 동일함)

회령식내를 경쾌하게 달리며... (문맥은 앞쪽 글과 동일함)

전전 지방 공업 공장들

새해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피워는 심장마디에 새겨난 전전 공업 일군들과 단원들, 근로자들이 지방원료와 유향자재를 가지고 가까이 인민소비품생산에 정상화하였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군이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서는 군의 자연적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지방의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합니다.》

3중3대혁명붉은기 율로가공공장에서 도토리, 머루, 다래 등 지난해에 따온 인위수 및의 산열매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율로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머루, 다래 등 산열매로 생산하는 갖가지 단원들은 평양시민들속에서도 인기가 높다.

2중3대혁명붉은기 식료가공공장에서 뒤장, 간장을 생산하면서 자체의 원로기지에서 생산한 원료로 콩유생산을 정상화하여 음식지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소학교학생들에게 공급하고있다. 그리고 지난해에 따온 도토리, 산나물, 콩피 등 산열매와 산나물로 술과 부식물을 만들어 군안의 여러 단위들에 공급하고있다.

다른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다.

기름공정에서는 군에서 보장해주는 원료로 콩기름생산에 계획적으로 하면서도 알레르기성 생산을 정상화하고있으며 종이공정에서는 산에 흔한 목재와 함께 파지를 리용하여 합성지, 병지, 포장지, 사무용지와 같은 제품들을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다. 수지일용용공정에서도 군에서 집중수배의 낱을 리용하여 마린한 페비닐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비닐제품들과 각종 규격의 비닐봉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군살림살이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피복공정에서는 학생복과 여러가지 피복제품을 생산하면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계속되는 한편 618건립절대, 중소형 발전조건설에 동원된 군안의 물적대원들에게는 작업복을, 도토리관리원들, 의로 일군들에게는 두툼한 솜옷을 해주었다.

목공정에서 생산한 등, 시루, 화분들과 일용용품생산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이불장, 양복장 등 가구제품들도 주민들의 평이 좋다.

지금 전전군안의 지방공업공정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장절임제품생산 시작

청봉종합식료공장에서

인민생활향상대전군에 부르는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청봉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새로 꾸린 장절임생산공정에서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새 장절임생산공정에서 이 지방에 흔한 산나물과 남새를 원료로 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기쁨을 주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광장도에서는 새로 건설된 종합식료공장의 생산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공정에 장절임생산공정을 새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종합식료공장의 원료의 대부분이 산나물과 남새인 조건에서 지배인, 기사

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자 대중속에 들어가 걸린 고리를 활하게 풀며 장절임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도록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였다.

공정에서는 이미 들어온 설비들에 대한 조립을 하는 한편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의 설비를 제작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그리하여 조립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청봉종합식료공장의 장절임생산공정을 새로 꾸리는 사업을 도와나선 도당의 예산지원대학, 방강공업대학, 요원 연구자들이 설비들을 제작, 조립하는데서 적극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나서서 풀어나갔다.

공정에서는 새로 꾸린 장절임생산공정이 온을 낼수 있게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쏟고 기대공들이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적극 내밀었다. 또한 원료 확보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 여러 가지 산나물과 각종 남새, 여자 수백t을 마련해놓았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열정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전철주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추켜들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추켜들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추켜들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추켜들고

지방공업혁명의 불꽃을 추켜들고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 의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 의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 의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일으킬 의지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농업근로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결기모임 진행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김책체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에 호응하는 농업근로자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결기모임이 7일 강서구역 청산리와 3대혁명전지관 교양마당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해동지와 판계부근 일군들, 농군맹, 녀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 녀맹원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리명길 농군맹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올해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생산물적선을 과감히 벌려나갈데 대한 새해공동사설과 김철의 호소는 나르의 활독을 책임진 농업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모든 농업근로자들이 올해에 농업전선을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으로 정한 당의 지도를 받들고 농업생산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쥐고 모든 농장에서 포진별특성에 맞게 작물배치를 잘하고 다수확물종의 일과작물들을 심으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선진

중앙위원회 위원장, 로성실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으며 김책체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이 전국적의 근로자들에 그 보내는 편지가 광복된 다음 토론들이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에서 전체 인민이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합니다.》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농군맹 조직들과 일군들이 농업근로자들중에서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사업을 일관성있게 벌리고 들끓는 협동벌에서 경제성동을 할수 있는 협동벌에 대해 강조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결기모임에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결기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내세운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새해의 대고조전선을 힘차게 다그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들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의 녀성들이 중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며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중운동을 적극 벌리고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녀맹원들이 주체철용광로의 밑받침 된 김철의 녀성들처럼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중요 전투장마디에서 선군시대 조선 녀성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며 인민경제 선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돌기 위한 돌격대행동을 활발히 벌려 대고조의 승리를 안아오는데 이바지할데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사회주의농촌을 힘껏 지원하여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기여

농군맹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여 대중의 정신허를 최대한 발휘할수 있는 주체사상, 선군사상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디에 올레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의 정신허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곳 당위원회에서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

올해공동사설을 피워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총남비로련합기업소의 당원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중의 양양련 열의에 맞게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디에 올레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새겨주면서 그들의 정신허를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곳 당위원회에서 학습담화를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

전투현장에서 진행된 학습담화

전투현장에서 진행된 학습담화

전투현장에서 진행된 학습담화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농업근로자들의 결기모임에서



